

말이 먼저 무너질 때, 공동체가 무너진다

— 교회 안 언어의 정확성과 책임을 회복하자는 제안 —

이상명/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총장

주일 오후, 한 청년이 담임목사에게 다가와 장로님이 전도사님을 ‘좌파’라 부른 일로 청년부를 떠나겠다고 말했다. 반대편에서는 한 청년이 나이 든 성도를 ‘꼰통’이라 치부하자 중년 성도가 조용히 자리를 떴다. 서로 다른 진영에서 비롯된 두 장면은, 누군가를 함부로 규정하는 거친 언어가 신앙 공동체를 갉아먹는 현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언어의 혼란, 낙인이 된 이념

오늘날 교회에서 빈번히 오용되는 ‘좌파’와 ‘우파’는 1789 년 프랑스 혁명 당시 국민의회 좌석 배치에서 유래한 상대적 위치를 뜻한다. 그러나 이 맥락 의존적인 단어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사회주의 같은 이념 체계와 무분별하게 결합하면서, 설명이 아닌 낙인의 도구로 전락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된 정치 정서가 한국 교회와 미주 한인 교회에 여과 없이 유입되어 교인들의 단체 채팅방이 정치 토론장이 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20~30 대 탈교인의 27%가 ‘교회 내 편향된 언어와 정치적 갈등’을 교회를 떠난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교회가 복음의 안식처가 아닌 정치적 동질성 집단으로 변질되면서, 성도들은 상처받고 청년들은 등을 돌리고 있다.

진리와 사랑을 가리는 세 가지 혼동

신앙의 언어가 이념에 종속되지 않으려면 혼용되는 개념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첫째, ‘좌파’와 ‘사회주의·공산주의’의 혼동이다. 좌파적 정책을 지지한다고 해서 곧장 공산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성경의 권위를 훼손해 경계해야 할 ‘신학적 자유주의’와 개인 및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치철학적 자유주의’의 혼동이다. 셋째, ‘민주주의’와 경제 이념의 혼동으로, 복지 확대나 시장경제 강조는 민주주의 내의 정책적 선택일 뿐 이를 신앙의 척도로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

종교를 탄압했던 공산주의 체제의 위험성을 경계하는 보수 신앙인들의 우려는 피로 쓴 역사적 교훈이기에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 경계가 힘을 잃지 않으려면 언어가 정확해야 하며,

「기독일보」

모든 진보적 견해를 ‘빨갱이’로 묶는 것은 ‘양치기 소년’의 외침이 될 뿐이다. 반면 진보적 신앙을 지닌 이들 역시 사회적 정의를 말할 때 윗세대를 ‘수구’나 ‘꼴통’으로 규정한다면 대화는 닫히고 만다. 선한 의도가 공동체에서 빛을 발하려면 상대를 포용하는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마침표 대신 쉼표의 언어로

교회 안의 이념적 낙인은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를 분열시키며(갈 3:28), 중국에는 신앙의 언어를 밀어낸다. 사도 바울의 권면(엡 4:15)처럼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실천이 필요하다.

첫째, 타인을 단정 짓는 ‘낙인어’를 상황을 설명하는 ‘서술어’로 바꾸어야 한다. 누군가를 향해 “저 사람은 좌파야”라고 선불리 규정하는 대신 “복지 정책에 대해 나와 다른 견해를 가졌구나”라고 표현함으로써, 대화를 단절시키는 ‘마침표’가 아니라 이해와 소통의 여지를 남기는 ‘쉼표’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둘째, 대화 중에 한 박자 멈추는 적극적인 절제를 실천해야 한다. 입 밖으로 말을 꺼내기 전에 스스로 ‘이 말이 진실한가, 진정으로 필요한가, 지금 당장 해야 하는가?’라고 질문하며 지혜롭게 자신의 말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셋째,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소박한 ‘말의 규칙’을 세워야 한다. 서로 의견이 다를 때는 상대방의 주장을 내 말로 먼저 요약해 준 뒤에 반응하자는 식의 작은 약속을 실천하여, 누구나 상처받지 않고 안전하게 대화할 수 있는 성숙한 공간을 만들어가야 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공동체를 세우거나 허무는 강력한 도구다. 교회를 떠나려던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힘은, 우리가 다음번에는 ‘다르게 말하기’로 결심하는 작은 절제에서 시작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다음 한마디가 누군가를 공동체 안으로 다시 부르는 문이 될 수 있다.